

# '87 夏季 CES의 分析

## 1. S-VHS, CDV에 큰 關心

美国 최대의 가정용 전자기기 전시회인 여름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SCES)가 지난 5월 30일에서 6월 2일에 걸쳐 나홀 동안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쇼에서는 대미 수출용인 S-VHS VTR을 비롯 CDV (Video)가 처음으로 공개되어 화제를 모았고 지난 겨울의 CES에서 등장했던 DAT Recorder는 저작권 문제에 따른 수입규제법안의 영향으로 약간 저조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美 마란츠가 10월부터 판매 개시를 선언, 미국시장에서의 DAT 연내 판매개시를 둘러싼 마케팅 전략 등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올해 夏季 CES는 S-VHS VTR과 CDV가 화제의 초점을 이루었으나 기술면에서는 영상기기 분야에서의 高畫質化, 음향기기분야에서의 Digital化가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동시에 비디오 게임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충실화가 눈에 띄어 미국 가전시장을 노린 뉴 비즈니스가 착실하게 대두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첫 등장한 S-VHS VTR은 제작년부터의 「VHS 대 8밀리」를 둘러싼 「제 2차 VTR 전쟁」을 뛰어넘은 형태로 VTR시장에 「高畫質시대」가 도래했음을 선명하게 상징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JVC에서 7월말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것을 비롯 주요 메이커들이 올가을에서 연말에 걸쳐 시장 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침체기운이 감돌고 있는 美 VTR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다만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현행 VHS기종과의 호환성 문제, S-VHS 대응 TV 등 소프트웨어에서의 지원체제 등 문제도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수상기를 포함한 풀장비로 2천弗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에게는 큰 쇼핑이 되기때문에 달러, 円환율 변동 추이와 관련, 가격 설정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CDV도 큰 관심을 모았다. 하드·소프트 메이커 22개사가 총액 150만弗 이상을 투입, 공동부스를 설치, 새로운 시장육성을 향한 애드벌론을 올렸다. 또한 CDV 공개를 계기로 파이오니아, 日本樂器製造, 필립스 등 CD, CDV, LV를 둘러싼 개개 제품·마케팅 전략 등이 선명하게 표명된 것도 이번 쇼의 큰 특징이기도 하였다. 연말까지는 280~300 타이틀의 소프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소프트 가격의 저시는 아직 없었다. 하여튼 CDV의 보급은 연말 시점까지의 소프트 타이틀 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美 마란츠가 오는 10월부터 DAT판매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수입규제법안, 대일보복관세 조치와 관련 CES에서의 DAT에 대한 화제가 퇴색되고 있었던 만큼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판매개시 선언에 호응하는 형태로 美電子工業會(EIA)는 美 하원의원들을 통한 DAT 레코더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토론회에서는 아티스트의 판권 보호를 인정하나 DAT 본체에 대해서는 「칩 리스」타입을 지지하는 의견이 대세를 차지했다.

## 2. Audio, Video와의 시스템化

美国 오디오 업계에도 Vidual화가 침투되고 있

다. 오디오기기와 VTR, VD, 프로젝션 Color TV와의 시스템 화면에서는 최첨단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다. 뉴욕 소재 하베이 사운드라는 하이파이 오디오 전문점의 경우, 60년의 역사를 지닌 점포이고 美国에서도 톱 클래스의 오디오 전문점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3~4년전부터 Vidual 도입을 시작, 현재 2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점포에서도 CDV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번 夏季 CES는 개막전부터 CDV, S-VHS VTR 등이 화제의 초점을 이루어왔고 하드 8개사로 소프트 14개사 등 CDV그룹 22개사는 사상 최초로 150만弗 이상의 巨額을 투입, 공동부스를 설치, 그 대대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은 CDV 세계전략의 개막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이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결정적 요인이 빠진듯한 느낌이 짙게 풍겼다. 최대의 관심거리였던 CDV 소프트에 Mock-up이 많았고 필립스에서 조차가격 발표가 없었던 탓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내에 280~300타이틀이 판매 개시되고 가격은 8弗 전후가 되리라는게 유력한 의견들이었지만 이번 CES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한편 DAT는 레코드 업계의 강경한 반대들의 식, 출품 메이커들의 전시 자세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들이었고 개막 첫날 메인 부스에서 빼버리는 메이커 조차있었다. 그러나 6월 1일, 美 마란츠가 「가령 소프트(녹음된 테이프)가 없더라도 또한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부진상태에 빠졌던 DAT에 대한 화제가 급격히 부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CES기간중 EIA는 미의회 하원의원 대표 5명을 초청 DAT 패널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칩 리스」타입을 지지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레코드 업계의 반대는 여전히 강경자세에서 DAT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리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았으나 해외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밖의 오디오 부문에서 눈에 띈 것은 CD 플레이어이다. 美国의 올해 수요 예측은 280만대, 단일 품목으로는 일본시장의 갑절이나 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출품 상품의 기능면에서의 새로운 면은 없었으나 CD chainger가 붙은 플레이어의 경우 매거진 방식이 출품 각사마다 제각기여서 매거진 수납은 몇장이 주류가 될 것인지, 통일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였다.

카 오디오의 출품도 눈에 띄었다. 미국의 카 오디오 시장은 올해 30억弗로 전망되는 큰 규모의 시장인데 One-body 타입의 웨어가 늘고 있다. 상품으로서는 차량 탑재용 CD플레이어/튜너에 인기가 모아졌으나 차량 탑재용 DAT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가정용 DAT와 함께 앞으로 기대를 걸어볼만한 품목이다. 차량 탑재 관련기기로는 자동차용 전화의 출품이 많아 주목을 끌었다.

### 3. VTR, 高畫質 競争時代 突入

미국의 VTR시장은 円高의 장기화, 파잉 공급, 가혹한 가격 경쟁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익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침체 무드를 일소하려는 것처럼 이번 CES에서는 일본 메이커들을 중심으로 「차세대 VTR」이랄 수 있는 전략상품이 공개되어 회장의 화제를 휩쓰는 양상을 보여주기로 하였다.

VHS 진영은 일제히 S-VHS VTR을 공개, 이에 맞서려는듯 Sony도 ED 베타를 전시하는 등 VTR전쟁이 고화질 경쟁에 돌입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EIA의 수요 예측에 따르면 올해의 VTR 총수요는 작년보다 4.2% 늘어난 1,372만 5,000대로서 거치형 1,200만대(작년비+1.6%), 포터블형 12만 5,000대(작년비-35.9%), 카메라 일체형 160만대(작년비+36.7%)로 전망되고 있다. 카메라 일체형이 늘고 있을 뿐 주종인 거치형의 고전이 예상되고 있어 미국시장의 고민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느낌이 짙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VHS 진영은 「차세대 VTR」로서 S-VHS VTR을 일거에 공개하여 JVC가 7월부터 시장투입 개시에 들어가고 주요 각사들도 8월부터 차례로 판매에 들어갈 뜻을 밝혀 VTR 시장에 새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베타 진영에서도 Sony가 S-VHS 대항기로서 ED 베타를 데모, 내년초부터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VHS 진영에서는 S-VHS 판매개시 1년후에는 거치형에서 15%, 카메라 일체형에서 30% 強의 쉐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JVC) 거치형 이외에도 JVC, 마쓰시다, 샤프가 카메라 일체형 S-VHS를 공개하였고 이밖에 마쓰시다, 샤프 양사는 재빨리 Compact 타입의 카메라 일체형 S-VHS/C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VHS 진영의 최고기업인 JVC가 카메라 일체형 S-VHS/C의 미국 판매를 빠르면 9월부터라도 시작하겠다고 시사, 이들 일련의 제품·판매 전략으로 미루어 예상이상으로 빠른 시일안에 현행 VHS 진영의 판도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베타 진영의 최고 기업 소니는 ED 베타의 공개 이외에도 8밀리 비디오와 2.7"형 액정 TV를 일체화한 신영상기기를 공개, 8밀리 Format의 정착과 함께 퍼스날 수요에 초점을 맞춘 신규시장 창출에 나서고 있다. 8밀리 진영에서도 앞으로 8밀리 비디오를 중심으로 한 제품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자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VTR도 이제 「차세대 VTR」출현으로 과도기를 맞게 될 조짐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 4. Color TV, 大畫面·高畫質 追求

VTR과 마찬가지로 미국 가정용 전자기기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Color TV는 30"형 이상의 대형·직시형 Color TV와 프로젝션 TV에 의한 고화질·대화면의 경연이 눈을 끌었다.

직시형은 고화질·고부가가치를 추구한 30", 31"형의 라인 업이 눈길을 모았고 프로젝션 TV도 대폭적인 화질개선과 함께 60"형의 점보사

이즈가 등장하는 등 스크린의 대형화가 현저했다. 중형기 분야에서 일본세는 급추격하고 있는 한국, 대만세의 맹공이 계속되는데 일본세는 대형기 분야에서의 제품 전략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였다.

EIA의 올해 Color TV 출하대수 예측은 1,830만대(작년비 +0.9%), 88년에는 1,850만대(동 +1.2%)로 거의 신장이 멈출 것으로 보고 있으나 VTR과 함께 미국 가정용 전자기기의 견인차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CES를 통해 직시형 Color TV의 30"형 이상 대형화 지향이 새로운 흐름으로 정착되어 가는 듯이 보였고 프로젝션 TV의 대형화 추구가 눈에 띄는 가운데 EIA는 올해 프로젝션 TV 출하대수를 32만 5,000대(작년비 +6.9%), 88년 35만대(동 +7.7%)로 보고있다.

다만 앞으로 직시형 Color TV의 대형화 추구에 따라 프로젝션 TV와 시장경쟁 가능성이 예상되는 한편 일본세의 대형 Color TV 현지생산 코스트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CD TV도 일본세중 마쓰시다, 도시바, 샤프 등에서 적극 데모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고 양산체제, 가격설정 문제 등의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나 신규시장 창출에 기여할 품목으로 기대되었다.

